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정책과제

박태호 부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목 차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현황과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황 2. 주요 특징 3. 투자동기 II. 해외직접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III.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규모 2. 수출 및 국제수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산업공동화의 문제 4.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문제점 IV.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책의 기본방향 2. 허가관련 제도 3. 지원정책 4. 사후관리제도 |
|--|---|

I.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현황과 특징

1. 현황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968년에 최초의 투자가 나타난 이후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나, 80년대 중반까지는 규모도 미미하고 종류도 비교적 단순한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렀다. 1985년까지 18

년간의 해외직접투자 누계는 5억 달러에도 못미쳤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해외 자원개발(광업·임업) 및 수출증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무역업에 대한 해외투자의 비중이 대단히 높은 단순한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외환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한 규제정책은 물론 기업들의 능력한계와 수동적 자세 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80년대 중반 이후 국내의 경제환경의 변화, 정부의 지속적인 자유화 정책,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역량 증대를 바탕으로 지

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국내 여건의 변화로는 임금의 급상승과 잦은 노사분규, 지가의 급상승, 80년대말 국제수지 흑자 시현과 이에 따른 환율의 하락(즉 원화의 평가절상) 등을 들 수 있으며, 국제 여건의 변화로는 국제금융시장의 급속한 확대, 세계경제의 통합 추세 및 지역주의 심화, 신흥 개발권 경제의 급성장 및 사회주의 국가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른 새로운 투자기회의 발생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시기에 따라 비교적 큰 변동폭을 나타내어, 1988~91년 기간중 급

편집자주) 본고는 1996년 10월 22일 전국경제인 연합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내용을 게재한 것임

〈표 1〉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건, 백만달러)

년 도	총 허 가		총 투 자		투자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1968-85	691	876.0(-)	603	570.6(-)	443	483.9
1986	74	364.9(-)	52	183.9(-)	476	645.1
1987	110	371.1(1.6)	92	410.5(123.4)	536	936.0
1988	253	479.3(29.1)	176	223.8(-45.4)	680	1,130.1
1989	368	943.3(96.8)	269	569.6(154.5)	926	1,522.5
1990	517	1,624.8(72.3)	339	959.3(68.2)	1,243	2,335.7
1191	539	1,605.6(-1.2)	453	1,125.4(17.3)	1,673	3,372.9
1992	632	1,210.4(-25.0)	500	1,255.0(11.6)	2,138	4,506.6
1993	1,050	1,888.5(56.1)	682	1,317.4(4.9)	2,754	5,578.0
1994	1,949	3,727.7(97.0)	1,476	2,346.7(78.2)	4,161	7,648.8
1995	1,560	4,913.6(37.0)	1,285	3,057.8(32.7)	5,327	10,233.9
1996상반기	825	2,859.2(50.2)	670	2,326.9(66.0)	5,959	12,205.0

주 : ()안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 투자잔액은 총투자 누계에서 정산, 감자, 대부금 회수 등을 차감한 것임.

자료 : 한국은행, 해외투자총계연보 1996.

〈표 2〉 연도별 건당 투자규모 변화추이(총허가기준)

(단위 : 건, 백만달러)

	1992	1993	1994	1995	1996 상반기
건 수	632	1,050	1,949	1,560	825
금 액	1,210	1,889	3,723	4,914	2,859
건당 투자금액	1.91	1.79	1.84	3.15	3.47

자료 : 한국은행, 해외투자총계연보 1996.

〈표 3〉 해외직접투자증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건, 백만달러)

	1992	1993	1994	1995	1996 상반기
총 투 자 (A)	1,218 (497)	1,262 (683)	2,305 (1,476)	3,064 (1,290)	2,327 (670)
중 소 기 업 (B)	251 (366)	330 (543)	540 (1,146)	607 (918)	321 (396)
비중(B/A,%)	20.6 (73.6)	26.1 (79.5)	23.4 (77.6)	19.8 (71.2)	13.8 (59.1)

주 : 총투자기준, ()안은 건수.

자료 : 한국은행, 해외투자총계연보 1996.

증하는 현상을 보인 후, 1992~93년 기간중에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가 1994년부터 다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이 결과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95년에 약 30억달러(95년 GDP의 약 0.65%)에 이르렀고, 96년에는 약 45억달러에(GDP의 약 1%)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외직접투자 실행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허가액이 계속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액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95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으로 투자규모의 대형화를 들 수 있으며 이는 최근의 해외투자가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1992년~94년 기간중 180만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건당 평균 투자규모가 95년에 315만달러, 96년 상반기중 347만 달러로 증대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표 2〉 참조). 또한 〈표 3〉에서 보듯이 전체 해외투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여 93년에 정점에 달한 후(건수기준 79.5%, 금액기준 26.1%), 94년부터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96년 상반기중 건수기준 59.1%, 금액기준 13.8%) 결국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총액의 80% 정도가 대기업에 의해 실행된 것이다.

우리기업의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은 크게 두가지 대조되는 측면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이른바 “국경없는 경제(borderless economy)”의 등장으로 일컬어지는 ‘기업활동의 세계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업경영의 범주

를 해외로 확대하고 있는 측면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 기업환경의 악화 및 외국의 수입규제 등을 회피하는 차원에서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수동적인 측면도 있다.

2. 주요 특징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80년대 중반까지는 광업·임업·수산업 등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중심이 되어 왔으나, 8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85년까지의 잔존 해외직접투자중 광업·임업·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9.7%에 달한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19.2%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말 현재로는 제조업이 57.3%(건수로는 66.7%)로 증가한 반면 광·임·수산업의 비중은 10%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표 4〉 참조).

제조업외에는 무역업의 비중이 20% 내외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내에서는 90년대 초반까지 섬유·의복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조립금속업(전기·전자산업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업의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점차 증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최근(96년 6월) 해외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유화에 따라 이 부문의 투자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1980	1985	1990	1993	1995
광업	1.4 (1.0)	171.1 (35.4)	446.7 (19.1)	634.8 (11.4)	700.9 (6.7)
임업	22.4 (16.0)	62.9 (13.0)	77.6 (3.3)	81.1 (1.5)	78.1 (0.7)
수산업	9.0 (6.4)	6.2 (1.3)	87.8 (3.8)	121.7 (2.2)	89.8 (0.9)
제조업	23.9 (17.0)	92.8 (19.2)	1,061.4 (45.4)	2,749.8 (49.2)	6,013.2 (57.3)
건설업	24.6 (17.5)	36.0 (7.4)	51.9 (2.2)	80.5 (1.4)	211.3 (2.0)
운수보관업	2.3 (1.7)	2.5 (0.5)	6.7 (0.3)	29.7 (0.5)	76.7 (0.7)
무역업	27.8 (19.8)	71.8 (14.8)	413.6 (17.7)	1,332.4 (23.8)	1,991.9 (19.0)
부동산	13.3 (9.5)	22.9 (4.7)	38.0 (1.6)	145.9 (2.6)	272.4 (2.6)
기타	15.5 (11.0)	17.7 (3.7)	155.3 (6.6)	410.6 (7.3)	1,062.7 (10.1)
계	140.3	483.9	2,338.9	5,586.6	10,497.1

주 : 연도말 투자잔액 기준, ()안은 비중.
자료 :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1996.

〈표 5〉 제조업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1980	1985	1990	1993	1995
음식료품	2.5 (10.5)	5.0 (5.4)	80.1 (7.6)	133.7 (4.9)	231.3 (3.8)
섬유·의복	1.0 (4.3)	3.4 (3.6)	150.3 (14.2)	375.4 (13.7)	730.1 (12.1)
신발·가죽	1.4 (5.9)	2.3 (2.5)	49.6 (4.7)	129.6 (4.7)	271.9 (4.5)
목재·가구	0.2 (1.0)	6.9 (7.4)	27.0 (2.5)	106.0 (3.9)	150.2 (2.5)
종이·인쇄	1.3 (5.6)	1.3 (1.5)	17.0 (1.6)	65.9 (2.4)	96.0 (1.6)
석유·화학	7.5 (31.6)	18.5 (20.0)	129.1 (12.2)	317.2 (11.5)	531.9 (8.8)
비금속광물	2.4 (10.0)	29.3 (31.6)	42.6 (4.0)	142.8 (5.2)	365.1 (6.1)
1차 금속	3.4 (14.0)	4.5 (4.8)	247.8 (23.3)	410.1 (14.9)	546.0 (9.1)
조립금속	0.3 (1.2)	15.4 (16.6)	256.0 (24.1)	751.9 (27.3)	2,420.2 (40.2)
기계장비	0.0 (0.0)	0.3 (0.3)	23.9 (2.3)	74.1 (2.7)	240.3 (4.0)
기타	3.8 (16.0)	5.8 (6.3)	37.9 (3.6)	243.0 (8.8)	430.4 (7.2)
계	23.9	92.8	1,061.4	2,749.8	6,013.4

주 : 연도말 투자잔액 기준, ()안은 비중.
자료 :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1996.

〈표 6〉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1980	1985	1990	1993	1995
동 남 아	40.0 (31.5)	102.7 (22.3)	690.5 (30.0)	2,066.2 (38.0)	4,573.9 (44.7)
중 동	21.1 (16.6)	39.6 (8.6)	56.1 (2.4)	89.1 (1.6)	102.7 (1.0)
북 미	31.0 (24.4)	148.3 (32.2)	1,099.7 (47.8)	2,186.5 (40.2)	3,152.1 (30.8)
중 남 미	4.4 (3.5)	9.9 (2.1)	121.0 (5.3)	217.1 (4.0)	336.5 (3.3)
유 럽	4.9 (3.9)	59.9 (13.0)	147.7 (6.4)	560.4 (10.3)	1,544.4 (15.1)
아 프 리 카	24.0 (18.9)	20.2 (4.4)	45.2 (2.0)	117.4 (2.2)	265.9 (2.6)
대 양 주	1.6 (1.2)	80.5 (17.5)	140.8 (6.1)	204.0 (3.7)	249.3 (2.4)
계	127.0	461.0	2,300.9	5,440.7	10,224.8

주 : 연도말 투자잔액 기준, ()안은 비중.

자료 :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1996.

〈표 7〉 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1992	1993	1994	1995	1996.1~8	1995말 잔존
〈동 남 아〉						
중 국	141	262	631	814	517	1,886
인도네시아	164	59	68	200	90	946
베 트 남	17	27	90	178	60	308
〈북 미〉						
미 국	347	384	531	534	1,271	2,707
캐 나 다	45	6	42	12	-	445
〈중 남 미〉						
멕시코	-	5	9	40	25	66
〈유 럽〉						
독 일	32	77	123	66	35	287
영 국	49	27	26	69	169	240
C I S	4	18	83	89	81	212
계	1,218	1,260	2,305	3,059	2,867	10,225

주 : 총투자기준.

자료 :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1996.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로 동남아, 북미, 유럽의 3개 지역에 편중되

어 있다. 동남아지역은 70년대까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80년대 초반 그 비중이

뚜렷이 감소하였으나, 80년대 중반 이후 재상승하여 95년말 현재 가장 높은 비중(44.7%; 건수로로는 72%)를 차지하고 있다. 북미지역은 80년대에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90년에는 47.8%까지 이르렀으나, 90년 이후에는 점차 그 비중이 하락하여 95년말 현재 약 31%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96년중에는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의 증가로 북미의 비중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표 6〉 참조).

한편 유럽지역의 비중은 80년대 중반이후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95년 말 현재 15.1%에 이르고 있으며, 96년중에는 투자가 감소하여 그 비중이 감소할 전망이다(〈표 6〉 참조).

국가별로는 90년대 초반까지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1, 2위를 차지하였지만, 92년 이후 중국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여 94년부터는 중국이 유량(flow) 기준으로는 최대 투자대상국이 되고 있다.

그러나 누계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비중이 더 커서, 95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별 해외직접투자는 미국(26.5%), 중국(18.4%), 인도네시아(9.3%), 캐나다(4.4%)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한편 건수면에서는 중국이 누계기준으로도 약 40%를 차지하여 최대 투자대상국의 위치에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해외투자 대상 지역으로 베트남, 구소련(러시아, 우즈벡 등), 독일, 동유럽, 멕시코

등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대부분 구사회주의권으로 이들이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투자기회에 우리 기업들이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투자동기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대체로 선진권에 대한 시장접근형 및 기술추구형투자와 개도권에 대한 노동력 활용형 및 시장선점형 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종래에는 대체로 수동적인 입장에서 선진국의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투자와 저임 노동력 활용에 위한 개도국 투자가 중심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적극적인 시장접근형 투자, 선진기술추구형 투자 및 개도형 시장선점추구형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를 살펴보면, 1) 현대의 풍부한 저임노동력이용, 2) 현지국의 수입규제정책 회피, 3) 현지의 풍부한 원자재 조달, 4) 현지 천연자원 개발 및 도입, 5) 매력적인 현지시장 진출, 6) 기술획득 및 도입, 7) 현지 정보수집 및 시장진출의 교두보 마련, 8) 제3국 시장진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동기외에도 많은 다른 요인들이 투자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를 가지고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투자동기와 투자지역 선정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김시중(1996) 참조). 설문조사의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를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개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동기는 모든 지역에 걸쳐 '저임노동력 이용' 동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제3국 시장진출, 현지 정보수집 및 시장진출 교두보 마련, 현지 시장진출 등이 주요한 투자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다른 개도권 지역에 비해 현지 시장 진출과 정보수집 및 시장진출 교두보 마련의 동기가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권의 경우, 미국에 대한 투자동기는 현지 정보수집 및 시장진출의 교두보 확보, 현지 시장진출, 기술습득, 현지의 원자재 조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EC지역의 경우에는 현지국의 수입규제 회피, 현지 정보수집 및 시장진출의 교두보 확보, 현지 시장진출, 제3국 시장진출 순으로 나타났다.

선진권에 대한 투자는 대체로 현재 및 미래의 현지시장진출 동기가 강하게 나타났으나, EC의 경우에는 수입규제 및 제3국(주로 EC내)시장진출 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기업규모에 따른 투자동기를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지 시장진출과 현지 정보수집 및 시장진출 교두보 확보의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였으며,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저임노동력의 이용 및 제3국 시장진출 동기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해당 투자지역을 선정하는 이유는 대체로 투자동기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에는 현지시장의 규모와 유망성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EC의 경우에는 사회간접자본의 우월성, 현지시장의 유망성, 현지국 정부의 인센티브 등의 순으로 투자지역 선정이유가 나타났다.

개도권의 경우에는 저임노동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으며, 특히 멕시코와 서남아시아에 대한 투자선정 이유에서는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외에도 저임노동력 확보는 중국, 남미아세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현지시장의 규모와 유망성이 높게 나타났고 아세안의 경우에는 현지권 정부의 인센티브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II. 해외직접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해외직접투자는 국민경제에 대해 다양한 효과를 미칠 수 있으며, 사전적(ex-ante)으로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모두 가질 수 있다. 또한 개별 해외투자

〈표 8〉 프랑스의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고용손실

(단위 : %)

교역국	순 고용손실이 일어난 산업		순 고용의 증가가 일어난 산업	
	5,000명 이상	모든 산업	모든 산업	5,000명 이상
세계 전체	13.9	34.2	65.8	53.4
EU	21.3	32.0	68.0	48.4
비OECD	5.4	16.6	83.4	57.2
기타	31.6	38.7	61.3	28.4

자료 : OECD 고용보고서(1995).

기업의 이해관계와 투자모국 경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해외직접투자가 국민경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로는 1) 외국 수입규제 우회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수출증대효과, 2) 국내 사양산업의 해외이전을 통한 산업구조정비 촉진효과, 3) 기술보유기업 인수 및 현지인력 채용을 통한 선진기술 습득효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반면 해외직접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으로는 1) 수출대체로 인한 수출감소, 2) 자본유출로 인한 국민투자 감소, 3) 기술이전을 통한 역수입 증가, 4) 국내산업공동화로 인한 생산 및 고용감소 등을 들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효과들은 위와 같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어떤 효과가 우세할지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결국 실증적으로 검증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위의 다양한 효과들이 모두 쉽게 측정가능한 것은 아니며, 또한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

다.

선진국에서도 해외투자로 인한 국민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립된 연구결과는 아직 없으며, 특히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최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논쟁의 핵심은 특정 부문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인한 생산 및 고용위축이 관련업종 혹은 신규 성장업종의 생산 및 고용증가로 상쇄될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OECD 고용보고서(1995)에 따르면, OECD 국가들로부터의 대개발국 직접투자는 대부분 수출산업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표 8〉을 보면, 프랑스의 경우 해외직접투자가 국내고용감소를 초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반면에 실제로 해외직접투자로 고용감소가 나타난 산업의 비중은 34.2%이고 순고용손실이 5,000명 이상인 경우는 13.9%였다.

특히 프랑스로부터 비OECD 국가로의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순고용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16.6%이고, 5,000명 이상의 순고용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5.4%에 불과하였다. 수입경쟁적 산업에서 해외

직접투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일종의 해외직접투자의 부메랑 효과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해외직접투자의 효과에 관한 논리 및 실증연구가 가장 진전된 분야는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특정시장의 규모나 시장점유율 등이 외생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면,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현지생산은 본국으로부터의 수출을 대체하게 되며,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는 수출감소효과를 갖게 된다.

그러나 현지생산이 현지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비용을 감소시켜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거나 현지생산이 본국 모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부품 등의 생산투입요소를 필요로 한다면, 시장점유율의 증가정도와 모기업으로부터 공급되는 투입요소의 비중에 따라 수출이 증가될 수도 있다.

또한 현지생산이 관련 서비스 제공 및 제품의 인지도 제고 등을 통하여 해당제품의 전체 수요 혹은 관련 제품의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해외직접투자와 수출간의 보완성이 더욱 증대될 수 있다.

김준동(199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는 대체로 보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도권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대부분의 실증연구에서 수출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lomstrom · Lipsey · Kulchychy (1988) 참조)

한편 해외직접투자와 기술습득, 산업구조정비 등과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까지의 해외직접투자 내용으로 보아 기술습득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 산업구조정비에는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해외투자결정은 불특정 다수 소액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해외직접투자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다국적기업이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양(+)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양의 다국적망 가설(positive multinational network hypothesis)이라고 하며, 미국의 경우 상당수의 실증분석이 동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ogut(1983) 참조).

예를 들어, 미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함으로써 1)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함에 따라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2) 현지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며, 3) 현지국의 미래 투자기회를 보다 유리하게 포착할 수 있게 되어 초기의 투자금액을 상회하는 초과수익이 발생하는 양(+)의 부의 효과(positivewealth effect)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의 투자금액이 작을수록 양(+)의 초과수익율을 시

현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임으로써, 초기투자가 작은 기업은 투자의 위험에 대한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고 미래의 투자전망이 밝게 되면 투자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는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외투자가 새로운 공장을 짓는 신규창업투자의 형태가 아니라 기존기업을 인수하는 M&A형인 경우에도 양의 다국적망 가설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이 동종업종일 경우에 주주의 부에 미치는 양(+)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기업이 호주, 뉴질랜드, 홍콩 등에 투자한 경우 부의 증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외투자시 투자지역의 선정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해외투자의 경험이 풍부한 기업일수록 해외투자는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비교적 역사가 짧고 그 규모도 최근까지 작은 편이어서 엄밀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기대하기는 곤란하나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30개 국내기업의 해외기업인수 정보에 대한 국내 주식시장의 반응을 실증분석한 결과, 국내기업의 해외기업인수 정보공시가 인수기업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정형찬(1992) 참조)

이는 양의 다국적망 가설과는 달리 해외기업을 인수하는 국내기업이 주로 국내생산의 효율성이 한계에 다다른 기업들로 생존전략적 차원에서 외국기업을 인수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26개 국내기업의 경우 해외기업인수에 따라 국내기업의 주주가 갖게 되는 초과수익율이 음으로 나타나, 국내 투자자들은 국내기업의 해외기업인수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호상·성용모(1994) 참조)

류승훈(1996)은 1985년부터 1994년까지 100% 완전소유 해외직접투자를 행한 제조업분야의 표본 100개를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기업공시가 주주의 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실증적 분석효과를 도출하였다.

1)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주가의 반응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양의 다국적기망을 형성할 수 있는 호기로 평가되기 보다는, 독점적 경쟁우위가 부족한 상황에서 선진국의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국내의 임금상승으로 인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 방어적인 생존전략적 차원에서 투자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2) 환율이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기업의 주주의 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

울절상기에 투자하는 기업은 국내 통화가치의 강세를 반영하여 주주의 부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3) 선진국의 이국적기업의 경우 광고선전비와 같은 마케팅 변수는 주주의 부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경우 광고선전비가 전혀 주주의 부에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시장진출시 마케팅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기업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4) 기업이 기술적 우위, 관리적 우위, 해외시장경험이 누적초과수익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이 무형자산으로 특화된 우위를 지닐 경우 해외직접투자가 유리하다는 직접투자의 내부화이론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해외투자가 M&A형을 취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주주의 부에 미치는 효과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해외투자 공시후 주가가 양의 반응을 보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M&A형 해외투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주주의 부에 대한 양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아직 선진국형의 다국적망 구축을 통한 기업가치의 증대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단

(표 9) 주요국의 해외직접투자규모(국제수지기준)

(단위: 백만달러, %)

	미 국		영 국		독 일		일 본		대 만		한 국	
	ODI	대GDP 비율	ODI	대GDP 비율	ODI	대GDP 비율	ODI	대GDP 비율	ODI	대GDP 비율	ODI	대GDP 비율
1988	15,448	0.32	37,112	4.42	11,432	0.96	34,210	1.18	4,120	3.35	643	0.35
1990	29,950	0.54	19,327	1.96	24,210	1.61	48,050	1.64	5,243	3.27	1,056	0.42
1991	31,380	0.55	16,304	1.60	23,720	1.49	30,740	0.92	1,854	1.03	1,500	0.51
1992	42,660	0.71	18,982	1.80	19,670	1.09	17,240	0.47	1,869	0.88	1,208	0.39
1993	72,590	1.14	25,671	2.71	14,480	0.84	13,740	0.33	2,451	1.10	1,361	0.41
1994	49,380	0.73	25,334	2.47	14,650	0.80	17,970	0.39	2,460	1.02	2,524	0.66
누적 잔고	612,100	9.08	286,400	27.97	194,100	10.58	275,600	6.00	24,800	10.28	7,600	2.00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Feb. 1996

(대만을 제외한 모든 통계).

Taiwan Statistical Databook. 1995(대만통계).

Jetro 백서, 투자편 1996(누적잔고 통계).

위당 규모가 거대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해외투자의 성격이 향후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III.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평가

1. 총규모

우리나라의 95년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약 30억달러(총투자기준)로 GDP의 0.65% 수준이었으며, 금년에는 약 45억달러로 GDP의 1%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상반기까지의 누적잔고는 122억달러로 금년도 예상GDP의 약 2.7% 수준인데, 상기 통계에서 빠져있는 금융·보험업의 투자규모를 포함할 경우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보다 늘어날 것이다.

국가마다 해외직접투자의 개념

정의에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국제비교가 어렵기는 하지만,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연간 투자액의 대GDP 비율에 있어서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연간 해외직접투자의 절대규모나 누적투자액의 대GDP 비율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주요 선진국의 수준에는 못미치는 실정이다.

1994년도 주요 선진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의 대GDP 비율은 0.4(일본)~2.5%(영국)에 걸쳐 있으며, 누적잔고의 대GDP 비율은 대부분 10% 이상이다. 국별로는 미국 9%, 영국 28%, 독일 11%, 일본 6%, 대만 10% 수준이며, OECD 국가의 전체평균은 약 15.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본격적인 확대의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큰 폭의 증가

를 시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대기업들의 해외사업 추진계획이 모두 실현된다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급증하여 단기간내에 선진국들이 오랜기간에 걸쳐 달성한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상에 발표되고 있는 해외투자 규모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전체 사업규모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부분 뿐만 아니라 현지 파트너의 투자, 여러 투자자원으로부터의 자금조달 등을 포함한 것이다.

2. 수출 및 국제수지

현재까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수출과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분석적인 실증연구 결과와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모두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데, 해외직접투자에 수반하여 설비, 원자재, 부품 및 완제품의 수출이 증가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역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수출액에는 큰 영향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수지에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기초 투자액의 상당부분이 설비수입에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직접투자자로부터 자본수지에 대한 부(-)의 효과가 상당부분 무역수지에 대한 정

〈표 10〉 한국의 산업구조 추이

(단위 : %)

	농림어업	광업업(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및 기타 ¹⁾
1975	25.0	27.5(26.1)	4.8	42.7
1980	14.9	31.0(29.7)	8.4	45.7
1986	11.2	31.9(32.1)	7.0	49.9
1988	10.2	32.9(32.1)	7.6	49.3
1990	8.7	29.8(29.2)	11.5	50.0
1991	7.7	29.0(28.5)	13.9	49.4
1992	7.4	28.2(27.8)	13.7	50.7
1993	7.0	27.3(27.0)	13.9	51.8
1994	7.0	27.2(26.8)	13.5	52.3
1995	6.6	27.2(26.9)	14.1	52.1

주 : 1) 전기·가스·수도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사회·개인서비스업, 정부서비스, 민간 비영리서비스가 포함됨.

자료 : 통계청, 한국주요경제지표(1996)

〈표 11〉 총고용에서 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

연 도	총고용중 광공업 비중		
	총고용(천명)	광공업(천명)	비중(%)
1987	16,354	4,602	28.1
1988	16,870	4,807	28.5
1989	17,560	4,972	28.3
1990	18,085	4,990	27.6
1991	18,612	5,061	27.2
1992	18,961	4,891	25.8
1993	19,253	4,704	24.4
1994	19,837	4,735	23.9
1995	20,377	4,799	23.6

자료 : 통계청, 한국주요경제지표 1996.

(+)의 효과로 바로 상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해외직접투자자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지법인으로부터의 투자수익 과실송금은 미미한 수준이며, 무역외수지에 미치는 정(+)의 효과도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의 해외 현지법인의 현지화가 진전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점차 수

출증대효과는 약화되고 수입증대 효과는 증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3. 산업공동화의 문제

산업공동화의 개념을 정교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단순하게는 “제조업의 쇠퇴로 인한 경제의 탈공업화(서비스경제화) 현

상"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산업공동화 현상과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하락하는 자연스러운 산업구조변화 현상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산업공동화를 가늠하는 계량적인 지표로서 GDP 및 총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지표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이와 더불어 제조업 생산 및 고용의 절대규모 변화도 참고할 만한 지표인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 중 제조업의 비중은 1988년에 32.1%로 정점에 달한 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93년 이후 27%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총고용 중 광공업 비중은 1988년 28.5%로 정점에 이른 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95년에는 23.6%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제조업 생산의 절대규모는 지속적으로 연평균 7% 이상의 실질성장율을 보여 왔으나, 제조업의 고용은 1991년 이후에 절대규모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에 비추어 볼 때, 한국경제는 어느 정도 세공업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용 측면에서 제조업의 비중하락이 뚜렷하지만, 이를 우리 경제에 산업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발전이 따라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자본집약적 제조업 및 서

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특정산업(신발, 섬유, 봉제 등)이나 이들 산업이 집중되었던 특정지역의 입장에서는 해당산업의 쇠퇴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공동화의 개념을 특정산업의 아닌 전체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볼 때, 특히 현재까지는 해외직접투자가 우리 경제의 산업공동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연간 해외직접투자의 규모는 역대 최고수준이었던 95년의 경우에도 GDP대비 0.67%, 국내 총투자 대비 1.7%에 불과하였던 것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의 탈공업화 현상의 원인을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에서 찾기는 어렵다.

시기적으로도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뚜렷하였던 94년 이후에는 GDP중 제조업의 비중이 오히려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업률이 2%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거의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가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업종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고용구조를 고생산성 부문 위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최근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산업공동화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기업들이 대규모 신규투자를 해외로 집중할 경우, 국내경제의 성장 원동력 자체가 약화될 우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4.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문제점

첫째,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은 치밀한 준비를 거쳐 이루어지기 보다는 최고경영자의 직관적 판단이나 경쟁기업의 해외투자 결정을 모방하는 이른바 bandwagon 효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투자사업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혹은 투자실행 과정에서 예견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유사업종의 여러 한국기업들이 비슷한 투자행태를 보임에 따라 투자유치국 정부 및 현지기업들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결과가 얻어지는 경우도 있다.

둘째, 투자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즉, 높은 debt-equity ratio), 특히 해당 투자사업의 수익성에 기초한 자금조달(project financing)을 활용하기 보다는 모기업의 지급보증에 의존하여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지법인의 경영부실이 나타날 경우 국내 모기업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에도 부담을 줄 수도 것이다.

셋째, 한국식 경영방식의 고수
와 현지문화에 대한 몰이해로 말
미암아 노사분규 등의 마찰이 발
생하기도 한다. 급속한 해외투자
의 증대로 말미암아 해외 현지의
상황에 익숙한 경영인력의 부족현
상을 경험하고 있기도 하다.

IV. 정책 과제

1. 정책의 기본방향

기업활동의 세계화 추세는 거스
를 수 없는 대세이고 이러한 환경
하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들도
생존을 위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추
진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
다. 또한 개별 해외직접투자 사업
의 수익성에 대한 판단은 정부보
다는 기업이 우월하다는 점도 인
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외직
접투자 관련정책은 일관성 있는 자
유화 정책의 추진과 정착에 기본방
향을 두어야 할 것이다. 설령 해외
직접투자가 산업공동화 등을 통하
여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다고 하더라도, 그 해결은 국내 투
자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도모해야
할 것이며, 이를 해외투자의 억제
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에는 근본
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다만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
형태에 일부 문제가 있고, 또한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 문
제들을 개선 혹은 예방하는 차원
의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2. 허가관련 제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제도는 거의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고 할 수 있으며, 이제 남은 규제는
5,000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
자에 대한 허가제 실시와 95년중
도입된 투자자금 조달방법에 대한
제한에 국한된다. 금년 6월중 해
외직접투자에 대한 업종제한은 완
전히 해제되어 부동산을 포함한
어느 업종에도 투자가 가능한 상
황이다. 현재 허가제도는 5,000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에만 적
용하고 있으며, 1,000만달러~5,
000만달러 규모의 투자는 신고수
리 대상이고, 1,000만달러 미만의
투자는 지정 외국환은행의 인증만
으로 가능하다.

완전히 신고제로의 전환은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자본자유화가 진
전되고 해외직접투자의 국민경제
에 대한 영향에 대한 자신감이 있
을 때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이
나, OECD 회원국에 한해서는 자
동승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해외투자 승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은행이 허가 여
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허가제도는 허가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허가 소요기간을 명
시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995년 10월부터 시행중인 해
외직접투자에 대한 자기자금 조달
의무는 오히려 국내투자를 위축시
킬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해외투

자의 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해외투자가 급속히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유지되고 있
는 등 제도는 98년에 철폐될 예
정이다.

한편 현지금융에 대한 모기업의
지급보증 제한은 해외투자사업 자
체의 사업성에 근거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타당성을 갖는 조치로 판단된다.
모기업의 지급보증이 없을 경우
현지에서 금융조달상 어려움이 발
생할 수 있으나, 이는 근본적으로
현지 금융기관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수익성과 위험도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국내 모기업의 무조건적 지급보
증은 현지 금융기관이 아무런 위
험없이 대출을 하도록 함으로써
현지금융기관의 대출심의기능의
여과과정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측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
서 현지금융에 대한 모기업의 지
급보증 제한은 현행 제도(총투자
규모의 50%, 모기업 자본금의
100%)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
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 연결기업에 대해 작
성이 의무화되어 있는 연결재무제
표(consolidated balance sheet)
의 작성을 해외자회사를 포함하도
록 의무화하고 연결재무제표의 실
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을 확충해야 한다. 외국의 우수한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자회사에 대
해 자발적으로 채무보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모기업이 지급보증을 한 재무상황이 알려질 경우 모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 금융기관이 아직까지 기존의 금융관행에 따라 대출을 하는 경향이 있어 엄격한 신용도에 따른 대출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모기업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방대한 규모의 지급보증이 국내 모기업이 해외로부터 자금조달시 낮은 신용평가를 받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투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업의 해외투자 공시의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지원정책

정부가 민간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지원하는 가장 기초적인 조치로서, 주요 대상국과 적절한 외교관계를 유지하여 기업인의 신변 보호를 보장하고, 투자보장협정 및 이종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외부효과(externality)가 큰 방면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실시하여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직접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기업들의 해외투

자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것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적인 해외 경제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해외투자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투자자문업이 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투자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한 일정한 보호장치로서 시행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 보험제도의 개선, 해외투자 전문 인력의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해외직접투자를 우대하는 금리구조를 개편하여 국내외 자원배분의 왜곡 가능성을 시정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즉,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자금대출의 조건이 국내 투자에 대한 자금대출 조건에 비해 뚜렷이 우월한 현 상황에 시정하여, 점차 동일한 조건하에서 기업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적절한 투자지역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투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외투자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수출보험제도를 보완하여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보험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사후관리제도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기존의 사후관리제도는 과거 외환의 해외유출 우려가 중요한 관심사이던 상황에서 해외직접투자를 허가받은 소수의 해외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높은 규제적 성격을 갖는 제도라고 평가된다. 현재와 같이 해외투자 기업이 증가한 상태에서, 다수의 형식적 보고서나 경영상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사후관리 담당기관의 업무도 가중시키면서도 그 실효성은 상실해가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가 확대되어 가면서 적절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사후관리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은 사후관리 내용의 단순화 및 그 실효성 확보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현재 사후관리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지법인 운영상태의 점검, 투자결과에 대한 관계 증빙서류의 청구 및 심사 등을 대폭 축소하고, 실제 사후관리는 허가(신고) 내용의 이행여부, 불법적 외화유출 방지에 국한해야 할 것이다.